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가 그린 영화 간판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가 담겨 있다.

80살 광주극장, 여기 사람이 있소

5~30일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 극장展

올해 문을 연지 80년이 된 광주극장.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극장 입구를 지나 왼편 문을 밀고 들어가면 영화 간판을 그리는 미술실이 나온다. 우리나라 '마지막 간판쟁이' 박태규(50)씨 작업 공간이다.

간판실 전체가 이번에는 전시실로 변한다.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곳에선 광주와 영화, 시대와 영화를 담은 '박태규 극장전-여기 사람이 있소'가 열린다. 간판실이 일반에게 오픈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극장측은 1톤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고 전시실로 바꾸었다.

2일 극장 미술실에 들어서니 2m 10cm×3m 80cm 크기의 대형 간판이 눈에 띈다. '저기 누구 없소', '여기 사람이 있었네' 등 박씨가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상영화 두편을 그린 간판이다. 이 작품은 5일 열리는 오픈식이 끝난 후 실제로 극장 간판이 내걸리는 극장 외벽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 이정현의 '꽃잎', 설경구의 '실미도', 최민식의 '범죄의 전장', 가상 영화자 운영의 '광주 탈출' 등 20여개의 간판은 미술실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간판실에 들어서면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다. 세로로 길게 장을 내놓은 간판실 천장을 통해 하늘이 내려 보인다. 색색깔 페인트와 다양한 크기의 붓도 눈길을 끈다.

'범죄의 전장' 출연 모습을 담은 하정우가 걸린 문을 밀고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나온다. 예전 분장실로 사용했던 장소로 배호, 이미자 등이 분장을 하던 곳이다. 현재는 수많은 포스터와 필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막식이 열리는 5일 하룻동안 일반인에게 오픈한다.

또 광주극장 사택을 개조한 '영화의 집'에서는 박씨가 '기억'을 주제로 작업한 '땀목향'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박씨가 처음 광주극장 간판실에 들어온 게

전시실 된 간판실 일반 첫 공개

'꽃잎' '실미도' 등 20여개 전시

극장과 얽힌 80가지 사연

관객 8명 모델로 간판 제작

간판 그리기 참여자 모집



1991년이였다. 당시에는 6명이 실 새 없이 붓질을 해야했고 영화관 외벽에는 현재 상영작과 예고편 등 6개의 간판이 내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간판쟁이이다.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안타까움, 아직까지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데 대한 자존심을 담아 이번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여기 사람이 있소'예요. 광주극장에서 영화만 상영한 게 아니라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나눔의 공간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광주극장과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간판도 특별히 제작한다. 관객들도 직접 간판 그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다.

하나는 광주극장에 관한 기억들로 채워진다. 광주극장이 80년이란 세월을 버텨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준 관객들이 극장과 얽힌 80가지 이야기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박씨와 관객들이 간판으로 그린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작업을 위해선 간판 그리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10일 오후 7시30분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일~12일, 18일~19일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간판 그리기에 동참할 수 있다. 직접 참여를 원하는 이는 홈페이지에 댓글이나 메일(radiogaga88@naver.com)로 신청(20일 마감)하면 된다.

또 한 점은 오랜 시간 광주극장과 인연을 맺은 관객을 모델로 그리는 간판이다. 광주극장을 자주 이용하는 8명이 모델로 선다. 한해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은 150~200편 정도. 대부분 100편 이상을 관람한 이들이 광주극장 매니아이자 자칭 홍보대사들이다. 전직 교사인 김용운씨, 조선대 박선희 교수, 공무원 정애화씨, 작가 박경화씨, 디자이너 이수진씨 등 20~6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완성된 간판 두점은 광주극장 간판 거처대에 내걸린다.

"80년 동안 광주극장을 사랑해준 관객들, 광주극장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이 모델로 선다. 영화 '시네마천국'의 한장면처럼 따뜻하고 모습으로 그럴까 생각중입니다. 모델은 8명이지만 그 속에는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담기는 셈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건물이 사라져 버리는 요즘, 왜 오래된 건물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학생 때 떠난 고향서 설레는 첫 연주회

송이른&다미앙 필립 피아노 듀오 연주회...5일 광주 드림아트홀

프랑스에서 활동중인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송이른과 다미앙 필립은 지난 2014년부터 듀오로 활동 중이다. 마음에 맞는 듀오 파트너를 만나는 건 힘든 일이다. 프랑스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다미앙 필립을 만난 송씨는 그와 의기투합했고, 콘서트홀 뿐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연주회를 가지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음악에 대한 대화를 할 때도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음악을 해석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테크닉과 생각이 있고, 듀오로 활동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필립하고는 그게 딱 들어맞았죠."

송씨는 "앞으로도 필립과는 오랫동안 듀오로 활동할 것 같다"며 "그들 연주회 아닌, 내가 기획해 광주에서 선보이는 첫 연주회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송이른&다미앙 필립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오는 5일 오후 5시 드림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 총장중 재학중 파리로 유학을 떠난 송씨는 말메종 도립음악원, 소르본대학 음악학과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 연구 과정에 합격, 학업과 함께 파리



송이른



다미앙 필립

고등음악원 등에 출강하고 있다. 다미앙 필립은 프랑스 보르도음악원을 수석졸업하고 현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교수 연구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에 들려주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과 라벨의 '엄마거위 동화'는 원래 피아노 듀오곡으로 작곡된 작품이지만 요즘엔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많이 연주되는 곡들이다. 그밖에 슈베르트 '판타지 f 단조', 모차르트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도 들려준다. 문의 010-9442-78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일 싼 가격에 작품을 살 수 있는 '아트광주 15'(오는 6일까지)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장식한 대형 초상 작품을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표작품 내 건 국내외 80여 갤러리 컬렉터 불잡기

'아트광주15'...6일까지 DJ센터

2일 광주에서 열린 '미술 장터'는 활기 찼다. 이날 오후 2시 개막식에 앞서 미술전문가와 취재진에 먼저 공개한 '아트광주15'(오는 6일까지)의 전시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는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감상하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80여개 갤러리들은 저마다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부스에 설치했고, 다양한 부대 전시가 곁들여졌다.

또 중국·일본·홍콩·대만·인도·싱가폴 등 7개국 14개 유명 화랑은 각 나라의 특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들이 자신의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이번 아트페어의 큰 특징이었다. 광주를 비롯한 국내 작가 120여명은 전시장 곳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며 컬렉터의 발길을 불잡았다. 또 150만~200만원대 작품이 대거 출품돼 부담없는 가격에 미술품을 살 수 있는 것도 특색있는 구성 중 하나였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30~40대 젊은 작가그룹들의 '광주영아티스트'전은 이 지역 화단의 미래를 엿보기에 충분했다.

이 전시에는 대인시장 대안공간 '미테우그로' 등 60여명의 지역 작가들이 출품한 참신하고 독특한 작품이 전시됐다.

또 광주 '미디어아트'전과 중국 칭다오(靑島)시 작가 6명이 초청된 '청도'전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였다.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색적이었다. 출구 벽면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각자 마음에 드는 작가들에게 스티커를 붙여 가장 많이 선택을 받은 작가를 뽑는 '인기작가상' 등의 이벤트가 준비됐다. 또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프리드로잉', 에코백·티셔츠 만들기·전통공예 등 각종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한편 이날 오후 6시에는 아트광주 15 조직위와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개막식이 열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대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이태리소파 **이태리가구, 소품** **통나무가구** **가구빌딩 지하~5층**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